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체 건립공정률이 78%에 올라서는 등 주요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광주시 동구 광산동의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 문화전당은 오는 10월 완공돼 2015년 7월에 개관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 날개 달고 아시아를 품안에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① 광주, 문화수도를 꿈꾸다

광주의 '문화발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오는 10월 완공돼 아시아 문화허브를 지향하는 광주의 미래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착공된 지 9년 만에 준공되는 문화전당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게 될 문화자산이기 때문이다. 또 광주가 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를 바탕으로 다져온 도시 이미지와 문화전당 인프라가 융합돼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전당 건립의 전체공정률이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전당이 제 모습을 갖춰감에 따라 이미 골격이 완성된 문화전당 5개원 건물은 옛 전남도청 일원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문화전당은 오는 10월 전체 공정을 마무리 짓고 2015년 7월 개관을 위한 시운

공정률 78%...10월 완공
5개원 골격 드러내
년 3조5000억 경제효과
광주 문화산업 거점으로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규모는 부지면적 12만8621㎡(3만8908평), 연면적 17만8199㎡(5만3905평)에 달한다. 연면적으로는 국내 최대인 국립중앙박물관(13만7289.66㎡)보다 넓다.

문화전당이 완공돼 개관하면 광주에서 문화산업의 씨앗이 울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화전당의 문화창조원·문화정보원 등에서 수집·축적한 아시아의 스토리, 예술 등 문화자원은 아시아 각국 예술가들의 창작공작품, 영상물, 회화 등으로 재가공돼 아시아예술극장 무대 등에 올려진다.

'메이드인 광주' 공연물은 광주·전

남 지역민들에게 첫 선 보인 뒤 '난타'와 같은 브랜드 공연으로 도약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문화전당이 보유한 문화콘텐츠는 배후시설 격인 '광주CGI(컴퓨터 형성 이미지)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 관련 기업에 공급돼 디자인·게임·첨단영상·에듀테인먼트·음악·공예 작품으로 가공, 유통된다.

지난 2007년 (사)경영정보연구소의 분석결과, 문화전당 완공에 따른 문화산업 파급효과는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1조원, 관광객 수요창출 효과는 2450억원 등 연간 3조5000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4 학년도 **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4년 **1. 6(월) ~ 17(금)까지**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 605-1114

조선대 이사 3명 사의...후임 선임은 실패

22일 개방이사 선임 합의...교육부 대응 주목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 선임에는 실패했으나 일부 이사가 사퇴하기로 하고, 개방이사 선임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파국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이사회는 1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3명의 이사 사퇴를 결정했을 뿐, 개방이사를 포함한 후임 이사를 단 1명도 선임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애초 오는 20일까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에서 교육부의 조치가 주목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육부 주문에

따른 이사 전원 선임은 하지 못했으나 8명의 임기만료 이사 가운데 주광일(변호사)·김택민(고려대 교수)·정순영(전 동명정보대 총장) 이사 등 3명이 사의를 표명, 교육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임시이사 파견조치를 비껴갔다. 이들 중 옛 경영진측 이사인 주 이사와 정 이사는 후임 이사를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추천 인사 수용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또 개방이사(3명)의 경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6명 중 3명을 조속히 선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갖기

로 했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지는 원칙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이며, 이사 후보에 대한 신원파악 등 시간이 필요해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대 이사회가 비록 교육부가 요구한 시한(20일) 내에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는 못했지만 개방이사 선임에 합의하고, 임기만료 이사중 3명의 이사가 사퇴하기로 하는 등 차기 이사진 구성에 의지를 보인 만큼 교육부의 즉각적인 임시이사 파견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사회가 단 한명의 후임 이사로도 선임하지 못한 만큼 교육부의 압력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 등 최강 인물 내세워 지방선거 승리" 김한길 대표 신년 회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상황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 내의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에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 당내 분과주의 극복 ▲ 소모적인 비방

과 막말 금지 ▲ 당 비상체제 운영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대표는 민주당과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간의 경쟁과 관련,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양자서서 주도하겠다.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지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면서도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을 다른 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정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공천 폐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을 상기하며 "새누리당이 시간을 끌고 국민의 명령을 피할 수는 없다"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마땅히 할 수 있다"며 "결국은 국민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새 추기경에 염수정 대주교

교황청 내달 22일 서임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71)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한국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 이후 세 번째 추기경을 배출하게 됐다. <관련기사 2면>

바티칸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염수정 대주교 등 19명을 새 추기경으로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임식은 다음달 22일 로마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열린다.

1943년 경기도 안성의 가톨릭 선교

자 집안에서 태어난 염 추기경은 가톨릭대 신학대를 나와 1970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지난 2002년 주교로 서품됐다. 이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겸 총대리로 김수환·정진석 두 추기경을 보좌하다 지난 2012년 서울대교구장에 착좌했다.

염 추기경은 13일 서울 명동성당 주교관 앞에서 열린 추기경 서임 축하행사에서 "발뽀이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도덕과 정치의 위기가



며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이 만연한 시대"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더 필요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현재 전세계 추기경은 모두 218명으로, 염 추기경을 비롯해 80세 미만인 123명의 추기경이 콘클라베(교황선거)에서 교황 선출권이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제3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 축제

2013.12.24~2014.02.09

주 제_ 겨울·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장 소_ 지리산 남원 바래봉 허브밸리 일원
주요행사_ 눈썰매, 얼음썰매, 빙벽체험장, 바래봉 눈꽃 등반대회, 눈조각 조형물전시 등

남원시